

## Issue Comment

2018. 4. 27

# 자동차

## 현대차그룹, 주주친화 정책의 시작



### 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  
02. 6098-6611  
joonsung.kim@meritz.co.kr

RA 이종현  
02. 6098-6654  
jonghyun\_lee@meritz.co.kr

### 현대차,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

금일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공시. 보통주, 1우선주, 2우선주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 지분 2%와 신규 매입예정 지분 1%를 포함해 3% 소각을 결정했으며, 기존 보유 지분이 적은 3우선주는 2% 소각 예정.

이에 따라 주주 입장에서는 EPS와 DPS가 3.1% 개선되는 효과가 발현되었음. 신규 자사주 매입 기간은 4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, 7월 27일 전량 소각이 이루어질 전망.

### 자사주 매입 및 소각 → 양적 · 질적 판매개선 → 배당성향 확대 흐름 예상

현대차그룹은 오는 5월 29일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일반주주의 찬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 예정. 향후 일반주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가치 개선 노력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.

금일 발표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시작으로 차주 5월 2일에는 새로운 신차 Cycle의 성과가 온기 반영될 첫 번째 월간 판매실적 (4월)이 발표될 예정. 4월 판매 실적은 1) 주요 볼륨모델인 쏘나타의 신차효과가 full-month로 반영될 내수 판매 개선 (3월은 3주차 판매만 집계), 2) 정치이슈 기저효과와 신차효과 (Reina 9월 출시, ix35 12월 출시, 코나 4월 출시)가 반영될 중국 판매개선, 3) 글로벌 영업일수 증가 (국내 +5.0% YoY, 미국 +10.5% YoY, 중국 +5.3% YoY, 체코 +5.6% YoY, 러시아 +5.0% YoY, 브라질 +11.1% YoY)에 힘입어 큰 폭의 호조세를 보일 전망.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대변하는 지표인 미국 인센티브는 3월에 이어 2달 연속 YoY 감소세 (회사 손익반영 집계 기준)를 기록하며 5년만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보일 예정. 이 같은 양적 · 질적 판매 방향성 전환은 실패한 Cycle을 뒤로하고 가동률 · 인센티브 개선에 힘입은 이익 승수효과 발현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.

추가적으로 Elliott을 비롯한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배당성향 확대 (글로벌 Peer Group 수준 상향 시 기존 대비 +50% 이상 상향) 정책이 발현될 가능성이 또한 높아진 상황. 펀더멘탈 개선과 주주친화 정책 확대는 기업가치 개선의 핵심 근거. 현대차, 현대차 우선주, 모비스에 대한 기준의 긍정적 시각 유지.

### 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4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, 이종현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